

구정질문 서면질문서

질문의원 : 이의결 의원

1.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 현재까지 추진현황
○ 개화산호수공원 현재까지 추진현황 <물관리과> <공원녹지과>
2. 2017~2018 화곡3동, 발산동 CCTV 설치현황 <재난안전과>
3. 화곡3동 주차장 건립계획은? <주차관리과>
4. 2018년 하반기 화곡3동 발산동 운동기구 설치계획안 <공원녹지과>
5. 수명산 보안등 미설치된 곳에 설치계획은 없는지? <도로과>
6. ○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단속은 잘되고 있는지? 단속사항?
○ 발산동 구성환경(주) 현재 운영실태 <청소자원과>
7. 발산지구 743번지 도서관 건립 협조요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와 SH공사, 강서구청은 더 이상 발산지역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약속대로 도서관 건립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산지구 743번지 부지는 1만㎡, 약 3000평으로서 2004년 착공한 발산택지개발지구사업 계획에 따라 당시 지역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에게 초등학교 건립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초등학교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묵살된채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으며, 이에 항의하는 발산주민들에게 서울시와 SH공사는 시립도서관 건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점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방침을 변경한다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기조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또 다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 강서구청은 발산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시립도서관 건립을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발산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마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와 SH공사, 강서구청은 발산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진1을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화면을 보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도서관 건립에 관한 검토만 하는 서울시와 SH공사, 강서구청의 탁상행정 탓에 743번지 부지는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부지는 현재 불법경작지, 쓰레기매립지로 전락했으며, 곳곳에

버려진 건설폐자재 및 생활용품 쓰레기가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진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온갖 쓰레기가 난무하고 흉물로 변해버린 공터가 대로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주변에 인도나 골목마져 각종 쓰레기가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진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부지 둘레에 설치된 높은 양철 펜스로 인해 빛이 차단된 탓에 오후 4시가 넘지 않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이용하는 인도는 너무 어두워 밤에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 차량 인사사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발산주민들의 교육·주거단지 환경을 크게 해치는데다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등 우범지역으로 범죄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와 SH공사 강서구청은 타 자치구에 비해 문화 소외지역인 발산지구에 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3위, 면적 2위이며, 발산지구의 경우 마곡지구 개발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된 상황입니다. 발산초등학교를 비롯한 15개 이상의 학교가 743번지 중심으로 최대 600M 이내의 거리에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 대비 타 자치구에 비해 문화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종합도서관급의 시립도서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한 발산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발산주민들의 수많은 민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강서구청이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강서구청은 서울시가 최대 지원을 해준다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책임회피성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발산주민들은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이는 시립도서관 같은 복지문화시설 조성에 절박함이 부족해서가 아닌 서울시와 SH공사 강서구청의 신중한 정책결정을 존중하고 그 과정을 믿으며, 정책결정에 따른 담당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산 주민들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서울시와 SH공사, 강서구청은 우리에게 실망감과 분노만을 안겨줬습니다. 2017년 12월 시장님의 현장방문 시 743번지 활용을 포함하는 용역 등을 통해 1개소 정도 거점도서관 긍정적인 검토를 한 바 있으며, 2018년도 5월 서울도서관 분관건립 계획발표와 6월 서울도서관 5개 분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실시하였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낭비하지 말고 발산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및 문화체육, 과학관 등 문화복합시설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 강서구청은 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검토 중이다, 시청과 협의하겠다, 진행하고 있다.” 이런 진부한 답변

이 아닌 서울시와 SH공사, 강서구청은 이 3건의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시를 강력히 촉구하며, 구청장님의 계획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발산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